

리깡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대한 프랑스 페미니스트의 비판에 관한 일고 : Luce Irigaray를 중심으로

이병혁
(서울시립대학교)

1 . 머리말

「제2의 성」에서 시몬느 드 보브아르(Simone de Beauvoir)는 여자들은 가부장제하에서 주체성의 표출을 부인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여자가 그녀 자신이 아닌, 남자와 관련지어 구분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여자는 비본질성이고, 남자는 절대자이고, 여자는 타자로 규정된다고 본다.

뤼스 이리가라이도 이러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현재의 사회질서에서 여자들은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용되며, 교환된다고 진단한다. 여자들은 단 한번도 ‘주체’로서 이 사회질서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자는 성적, 더 보편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환이라는 기능과 관계있는 ‘특수한 착취’ 상황속에 있다. 그녀가 자기의 특수한 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성은 매매의 대상으로서만 그 안에 ‘들어간다’. 게다가 성적 ‘정체성(identité)’은 그녀에게 생소한 유형에 따라 강요된다. 그녀 자신과의 관계를 그녀로부터 빼앗는 ‘남성적’ 체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자가 언어활동에 그리고 다른 여자들쪽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여자들의 사회적 하위성은 더욱 심해지고, 복잡해진다. ‘여성’은 오로지 남성에 의해, 남성들을 위해 결정된다. 상호성은 ‘사실’이 아니다.

이리가라이에 따르면, 정신분석은 진실에 대한 답론을 여성의 성욕을 근거로 유지한다. 즉 여성적인 것은 남성주체들에 의해 강요된 모델들과 법칙들

내부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위한 진실이다. 이 진실은 실제로 두개의 성이 아니라, 하나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성의 유일한 실천과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여성의 역사로 말하자면, 여성이란 성은 그 필요성, 그 이면, 그것이 결핍하고 있는것들, 그것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이란 모델은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에 의해 발전된 가치들, 즉 소유권, 생산, 질서, 형태, 통일성, 가시성의 건립 등에 참여한다.

프로이트(Freud)는 ‘정상여성으로의 변화’의 동기가 하나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문화적으로 가치를 독점하는 성기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일 수 있는 ‘음경을 갖고 싶은 욕구’가 그것이다. 음경이 없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것을 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모성안에서 ‘음경의 대체물’인, 그리고 음경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때에만 자기성취를 경험할 것이고, 행복이 완성될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여성의 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자신의 성기에 개의치 않고, 남자의 성기를 재생산하는 것이 된다. 사실 여자는 결코 외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녀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아버지에 대한 욕망속에서, 아버지에게 또 그의 법에 굴복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이러한 여성성의 부정을 재개념화해서, “여성 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은 ‘끓주리는 자’로서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쾌락에 대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성관계는 없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리가라이는 정신분석학 이론이 여성의 성욕과 성관계의 위상에 대해 진실을 말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거기에 그칠 뿐이라고 진단한다. 정신분석학적 담론의 역사적 결정과정들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면서, 특히 자기들의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남성위주의 성변화가 함축하고 있는 바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면서, 이 이론은 남근중심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 사상에서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남근중심적 정신분석학의 틀을 극복하기 위해, 이리가라이는 성차의 견지에서 더 이상 서열을 이루지 않도록, 무의식에 대한 청취와 해석을 실천하려고 애쓴다. 이 실천을 위해 스펙큘럼과 오목거울의 개입이 일어난다. 이 작업의 정치적 효과는 여자들의 '해방'인데, 이 해방은 반드시 문화의 변화와 언어활동의 변화를 거쳐, 경제학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문화의 일반체계를 해석하지 않고서는 여성성이 역사속에서, 혹은 질료와 사색을 위한 집합소라는 양식위에서 결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¹⁾

2. 성차이에 대한 퀴스 이리가라이의 페미니스트적 시각

이리가라이의 소망은 여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차를 인정하면서, 여성에게 여성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이 성차(남성/여성)는 늘 주체(남성)의 표상체계들, 자동적 표상체계들 '내부에서' 작동해 왔다. 게다가 이 체계들은 실제적인 성적 무관심을 배우기 위해, 분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여러 차이들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성기, 그것이 없음, 그것의 위축, 그것의 부정, 이런 것들이 두성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여성은 남성의 이면, 게다가 반대로서만 늘 규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결핍속에 정지하는 것, 이 부정을 폭로하면서 그 속에 정지하는 것, 여성으로부터 '성적차이'의 기준을 만들면서, 동일함의 체계를 전복시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차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리가라이는 보고 있다. 그녀의 관심사는 독서와 문체, 해석, 증명의 다른 어떤 양식이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성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차이가 다시금 서열화의 과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일이 가능한가? 타자를 동일성에 복종시키는 과정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예 있다.

이리가라이는 이러한 관심사를 실행에 옮기기위해, 여성의 성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정신분석학 이론에 제기한다.²⁾

1) 퀴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서울, 2000. p.203 참조

첫째, 음핵의 쾌락/질 쾌락의 교체가 왜 그런식으로 정신분석학에 참여해 왔는가? 왜 여성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 만일 첫 번째 선택을 할 경우에는 ‘남성적’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질의 성적 요구에 틀어박힌다면, ‘여성적’이라고 규정되어 왔는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여성의 성욕발달과 그 ‘번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정으로 유효한가? 아니면 여성을 남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혹은 남성의 자기성애와 이성애에 대한 성애 가운데 무엇이 더 우월한가를 가르기 위해 중요한 기준들이 요구하는 것인가? 사실 여성의 성감대는 음핵이나 질, 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음핵과 질 모두이고, 음순과 외음부 그리고 자궁경부와 자궁, 젖가슴 등이 모두이다. 우리가 놀랄 수 있었던 것, 분명 놀랐을 사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성욕에 있는 ‘수 많은 성감대들’이다.

둘째, 프로이트와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질이라는 여성도구의 기관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리비도 구조화는 상당부분 사춘기 이전에 결정되었을까? 게다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특성들은 모성성애, 그리고 모성적 보살핌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부여된 성역할에 관한, 특히 사람들이 여성에게 제시하는, 혹은 여성에게 빌려주는 모습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성체계에 여성이 개입하는 것을 제재하는 사회적 특수성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여성이 ‘여성고유의’ 독특한 쾌락에 접근하기 전부터 말이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성이 ‘...이 없는’, ‘빼앗긴’, ‘갈망하는’ 등의 존재로만 나타남을 이해하게 된다. 말하자면 거세된 것으로 말이다.

셋째, 왜 모성의 기능은 여성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관능적 기능을 이기는가? 왜 아직도 사람들은 그녀를 서열화된 선택에 굴복시키는가? 그녀 스스로가 굴복하는 것인가? 성의 두 역할의 연결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분명 이러한 규정은 (재)생산체계와 그 이데올로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여전히 남성욕망에 대한 굴복을 표시하기도 한다. ‘여성 이 자기 남편에게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 그녀가 아이에 대해 어머니

2) 같은 책, pp.80-84 참조

답게 행동하지 않는 한, 부부의 행복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 질문을 예고한다.

넷째, 여성의 성 발달은 왜 남성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복잡한가? 만일 여성이 남편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발달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음경의 거처로서만 가치를 얻는' 질 자체는 "어머니의 가슴을 확실한 유산으로 남긴다." 다시말해, 그것은 여자아이의 성적 대상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집착을, 또 일찍 집착의 대상이 된 성감대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가? 그녀가 늘 남자쪽에서 오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말이다. 어머니와의 사랑, 혹은 적절한 대체물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왜 여자는 남성이 지니는 혈통에 대한 욕망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야만('중오'해야만)하고,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버려야만 하는가?

다섯째, 왜 여성의 동성애는 아직도 항상 남성 동성애의 유형에 따라 해석되는가? 남성의 동성애는 한 여인에 대해 욕망을 품는데, 이 여인은 남근을 가진 어머니와 동등하고 / 혹은 어떤 특징들에게서는 그에게 자기 형제 같은 다른 남자를 상기시킨다. 왜 동성애에 대한, 같은 여자에 대한 욕망이 여자에게는 금지되고,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까? 더욱이, 왜 여자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들이 꼭 '남성적' 욕망이라는 용어로, 동성애라는 용어로 사유되는가? 여성과 그녀의 독특한 욕망이 맺는 관계들에 대한 이 오해, 이 비난, 또 그 뿌리와의 관계를 정교하게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는 '유일한 리비도의 우월성'을 확신하기 위함으로, 여자아이 자신은 자기의 초기 욕동과 초기 집착이 강제로 억압당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녀의 리비도인가?

여섯째, 이것은 여성의 성욕과 관계있는 여러 논쟁들 속에서, 능동/수동의 대립이 여전히 끈질지게 남아있는 이유를 규명하려는 문제와 이어진다. 여성 리비도는 항문기인 생식기 이전의 특징으로 규정되지만, 출산에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역할들을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리비도는 여전히 남성-여성의 차이(여기서 심리적 색채를 끌어내게 된다)를 표시한다. 어떤 관계 때문에, 계속 이 수동성이 가학적 항문의 욕동들, 남자에게는 허용되고 여자에게

는 금지된(억제된), 이 욕동들에게 유지되는가? 그 때부터 남성은 아이(생산물)와 여성(재생산기계), 그리고 성기(재생산의 원동력)에 대한 유일한 소유자로 확인된다. 수태가 일어나게 되는 강간, 게다가 몇몇 (여성)정신분석학자들에게 의해, 여성적 쾌락의 충족으로 제시된 강간은 이러한 성관계의 유형이 된다.

일곱째, 왜 여성은 승화에도 거의 적응하지 못하는가? 그녀는 아버지의 초자아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는가? 왜 여성의 사회적 생태는 여전히 상당부분 “노동이 유포하는 계약의 질서를 벗어나는가? 특히 이는 가부장제가 쇠퇴하면서, 결혼상태가 유지하는 결과 때문인가?” 이 두 질문은 아마도 여성이 어떤 노동의 계약도 명시되지 않은 채, 혼인증서가 그것을 대신하는 가사노동에 얽매이게 된다는 사실과 결부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에게 부여된 성적 운명의 역사적 결정론은 충분히 의문의 대상이 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신분석이 그 이론적, 실제적 영역의 한계 자체를 재고하고 있음을, 이 정신분석이 정신분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온 문화적 기반, 경제, 특히 정치적 기반의 ‘해석’ 주변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양의 일반 경제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땠는가를 설정하지 않는 한, 국부적인 토론, 여성 성욕에 대한 토론이 과연 가능한가를 자문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수세기 동안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철학적 체계, 종교적 신화 등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기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견지에서 이리가라이는 남근(phallus)이 그의 특권을 질투하는 신의 실제 모습이 된다는 것에, 남근이 이러한 명목으로 담론자체의 최종의미가 되고, 진실과 소유의 표준, 특히 성기의 표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또 욕망 자체의 궁극적인 기표, (혹은) 기의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혹을 품는다. 게다가 가부장제의 표시이고, 원동력인 남근이 계속 아버지(하느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신뢰감을 보장할 수 있는가도 의심하고 있다.

3. 헤미니스트적 정신분석시각에 대한 자끄 라캉의 기호학적 입장³⁾

라캉은 임상적 사실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즉, “성의 해부학적 차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주체와 남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인가?

1) 잠깐 동안이라 하더라도, 왜 여자아이는 어머니 때문에 남근이 박탈됐다고 생각하는가?

2) 왜 두 성(남성과 여성) 모두 원래 남근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가?

3) 어머니의 의미작용이 증상의 형성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어머니의 거세 사실을 발견한 뒤인가?

4) 왜 남근기인가? 다시 말해 왜 두 성 모두에 있어서 남근이 우위인가? 그것과 아울러 처녀의 생식기로서의 질이 무시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프로이트의 답변이 바로 프로이트 이론이 된다, 그는 항상 남근의 우위를 지켜내려고 애를 쓴다. 1923년부터 「어린이의 생식기의 조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두 성(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역할을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생식기인 남성의 생식기이다. 따라서 생식기의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근의 우위가 있는 것이다.”

<남근 논쟁>

라캉은 『세미나XI, 정신분석의 네가지 기본 개념』에서, 남근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출발한다. 즉 “생물학적 차원에서 누가 재생산의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재생산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이트를 따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심리에서는 있는 그대로 재생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심리에는 주체를 남성적 존재나 여성적 존재로 위치시키는 것이 아무것

3) 이 장의 내용은 2000년 4월 1일에 있었던 『Pierre Skriabine 초청 라캉 정신분석학 국제 학술회의』에서 P. Skriabine이 행한 라캉의 「남근의 의미작용」에 대한 「해설」을 주로 참고함.

도 없다". 남자와 여자로서 해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지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Autre)의 영역속에 있는 기표의 질서에 속한다고 봄으로써, 기호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에른스트 존스(E. Jones)와 웨미니즘은 이러한 기호학적 관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있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관건은 자연스레 구조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존스나 웨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입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캉은 「남근의 의미작용(Signification du phallus)」의 서두에서 그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프로이트의 남근주의가 역설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의 이론의 축이며 정점(定點)이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현실이나, 그 어떤 역사적인 형태발생의 의미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 그러한 구조화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잘 이해 될 수 있다. 즉, 남근은 본질적인 결핍(manque)을 가리킨다. 그것은 우선 어머니의 결핍인 구조화하는 존재-결핍이다. 그것은 성욕의 중심에 있다.

남근의 우위는 어디까지나 기표로서의 상징적인 남근의 우위이다, 따라서 그것의 상징적인 차원을 포착하지 않고, 그것을 상상계로 끌어내리는 것은, 분석치료에서 제어할 수 없는 일탈을 불러온다.

<기표로서의 남근>

라캉은 앞에서 언급한 프로이트의 입장의 역설을 인정한다. 즉 인간 주체는 그것이 없는 곳(다시 말해 여성 쪽에서) 찾고 있는 남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라캉은 프로이트를 근거로 하여, 기표의 개념을 도입한다. 라캉은 『라디오포니(Radiophonie)』에서 “프로이트는 소쉬르(F. de Saussure)를 앞지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프로이트가 기호학적 입장에서 서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프로이트의 발견은 언어학에서 발전된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사이를 이미 조명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심리현상에는 어디에나 기표가 따라다니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기표가 있고, 그 기표는 능동적이어서, 의미화 할 수 있는 것(le

signifiable)에 작용한다. 말하자면 의미를 떨 수 있는, 살아 있는 실제 육체나 그 부분에 작용한다. 이 기표작용의 효과가 바로 기의이고, 기의로서의 주체이다. 기표의 효과인 주체는 기표에 종속되어 있다. 주체는 기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표와 아주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기표의 기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발견의 원리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원리 위에서, 라깡은 언어에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에 관여하는 문화주의적 입장을 조금도 문제삼지 않는다. 하물며 정동(affect)은 더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심리 현상에서 기표의 효과, 즉 주체를 찾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법칙에서 출발하여, 그 법칙을 기표 효과인 기의(주체)와 결부시키는데 있다.

남근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현실의 요소(부분적인 대상)도 아니고, 상상적인 요소(환상)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표이다. 라깡에 따르면, 기표 중에서도 남근은 특별한 기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의의 효과들을 기의로 하는 기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의의 효과(기표의 현존에 의해 결정되는)를 가리키는 ‘메타(méta)’ 기표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기호성(signifiante)을 가리키는 기표이다.

	Φ
Sa	sé
sé	

[Φ : 남근, Sa : 기표, sé : 기의]

<남근의 지양>

- 욕구(besoin), 요구(demande), 욕망(désir)

살아 있는 존재(le vivant)에 대한 기표의 효과를 살펴보자.

단지 기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살아 있는 존재에 작용한다는 사실로 해서, 그 존재는 말하기 시작하고, 기표는 사물(das Ding)의 향유와 단절된 주체를 생산한다. 이제 사물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성적인 것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기표를 통한 관계, 기표에 의해 매개되는 관계만 있을 뿐이다. 주체가 욕구충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표의 행렬, 즉 기표의 장소인 대타자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라캉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하는 본질은, 모든 것이 기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표가 지나는 그 길에는 나머지가 남는다. 욕구가 대타자로부터 요구의 형태로 되돌아올 때, 요구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잘려나가 원초적 억압(Urverdrängung)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계에서 배제된 것, 다시 말해, 상징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다. 이러한 여분은 집요하게 회귀하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고,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요구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캉은 이러한 욕망의 역설적이고, 일탈적이고, 수수께끼같고, 탈중심적이고, 터무니 없는 특성을 강조한다. 욕망은 기표의 효과이지만, 근본적으로 기표에서 제외된 반역자이다. 기표는 욕망을 길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논리적인 욕망의 지위를 밝히고 그것의 구조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남근과 성적 관계의 수수께끼.

인간존재에게 있어서 성적인 것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것에 관련된 주체들 각자는 “욕구의 주체나 사랑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욕망의 원인을 대신한다”고 라캉은 쓰고 있다.

욕구, 요구, 욕망의 세 범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욕구는 살아있는 육체, 다시 말해 생명의 흐름에 속하는 것이고, 요구는 기표에 매달려 있고, 욕망은 대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라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남근은 말(logos)과 욕망을 연결하는 기표이다. 그것은 성교와 관련있는 발기기관-“수태시키러 가는 생명의 흐름(정자)으로 발기하는 이미지“-에 의지하는 특수한 기표이다.

의미화될 수 있는 육체의 한 요소가 육체에서 공제되어 기표로서 기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의 지침인 남근의 원리이다. 라깡은 1970년 『라디오포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성적인 것이 기표와 특수한 관계를 맺는 신화점(le point de mythe)이 남근에 요약되어 있다.” 욕망을 가리키는 기표인 남근은, 요구와 향락(jouissance)의 접합장소이다. 남근은 향락과 관련있는 모사(semblant)이다.

○남근과 기표의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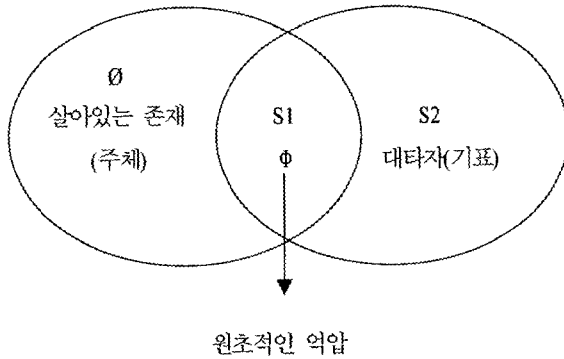
남근은 가려지고 사라진다는 대가로 나타난다. 모든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이 기표의 기능으로 승격하여 넘어갈 때, 그것에는 잠재성의 낙인이 찍힌다고 라깡은 말하고 있다. 흔적, 표시, 즉 기표의 계열에 오른 대상은 그 자체로 지워지고 사라진다. 기표의 지양(Aufhebung)은, 예전에는 기표의 계열로 끌어올리는 가치였던 사물이 철수되고, 무화(無化)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표의 계열로 남근이 지양된다는 것은, 남근이 가려짐으로써 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라깡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 “남근은 그러한 지양자체의 기표이다. 그것은 자신의 사라짐을 통해 기표를 최초로 세운다.” 이렇게 남근은 의미화될 수 있는 것에서, 기표로 넘어가는 것의 모델을 제공한다. 남근은 그러한 기표를 최초로 세우고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한 남근의 지양은 동시에 억압(Verdrängung)이다. 거기서 상호보충적인 두 차원의 분열(Spaltung) - 라깡이 주체의 분열(refente du sujet)이라고 지적하는 - 이 유래한다 :

- “주체는 자신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횡선을 그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가리킬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주체는 기표를 갖고 있지 않다.

- “원초적으로 억압된 것(lurverdrängt)속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 - 따라서 기표로 표시되고, 억압되는 살아있는 존재의 부분 - 는 “남근의 억압

(Verdrängung)의 표시를 갖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라캉이 『세미나XI, 정신분석의 네 가지 기본개념』에서 전개한 소외의 도식의 전제를 알아야 한다. 주체는 기표 밖의 존재(\emptyset)와 존재 없는 부분(S2)의 효과사이에 분열되어 있다. 주체는 기표로 표시되는 살아있는 존재의 부분(S1)을 잃게 된다. 그 부분은 원초적인 억압 속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말에 접근하는 대가이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무의식이다.

<남근, 욕망의 근거>

라캉은 「남근의 의미작용」의 끝에서, 욕망의 근거로서의 기표-남근(phallus signifiant), 다시 말해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산식이고, 척도이고, 지수이고, 지표인 기표-남근의 기능을 발전시킨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된다.

우선 이러한 사실은 기표로서의 남근 자체가, 상상적인 남근과는 반대로 욕망에 고유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타자로부터 욕망의 대상을 지시하고, 가리킬 뿐이다. 남근이 기표라는 것은, 주체가 그것을 대타자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주체는 대타자의 장소로부터 대타자의 욕망을 참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욕망의 척도를 발견한다.

그런데 남근이라는 기표의 설치를 허락하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 도입된 법

이다. 그러면 남근 쪽에서는 구조를 조직하여, 남성과 여성사이의 관계와 두성의 전형적인 행위를 거기에 종속 시킨다.

남근이 주체에게 현실성을 부여한다면, 다시 말해 그에게 성적인 동일시의 현실을 제공한다면, 남근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관계를 실현시키지 않고, 그 관계를 모사⁴⁾의 차원으로 이양시킨다. 왜냐하면 기표로서의 남근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모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체는 남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건(이것은 남자의 과시이다), 아니면 남근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건(이것은 여자의 위선이다), 거세에 직면해서 괴상하게 뒤집어 쓰는게 모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성의 과시와 여성의 위선의 혈연관계를 보게 된다.

여자가 여성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그러한 남근적인 모사의 비호아래, 위선 속에 위치시키는 것은 대타자의 욕망의 기표인 남근이 되기 위한 것이다. 여자가 욕망의 대상이 되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닌 그러한 모사를 위한 것이다. 위선은 남근적인 모사를 현재화 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은 남근의 부재를 가리면서도, 그것의 결핍을 드러낸다.

여자의 욕망으로 말하자면, 여자는 그것의 기표를 그녀의 사랑의 요구의 상대가 되는 남자의 육체 속에서 발견한다. 여자는 남자가 남근의 기관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남자를 욕망하고,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욕망할 때', 여자는 대상을 찾고, 여자가 '사랑할 때', 여자에게는 남근의 기관이 없는 상태에 놓인다.

여자에게 있어서, 욕망과 사랑은 동일한 대상으로 수렴된다.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욕망에 고유한 억압은 작은 편이다. 또한 성적인 불만족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편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랑과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반대로, 욕망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사랑이 남근의 부재를 대신하도록, 남근이 여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남자는

4) 모사(semblant)의 개념에 대해서는 딜런 에반스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pp.121~3 참조 요망.

여자가 남근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즉 거세되었음으로 해서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남근에 대한 남자자신의 욕망은, 남자로 하여금 처녀나 창녀 처럼 남근을 의미하는 다른 여자를 욕망케 한다.

이러한 사랑의 대상과 욕망의 대상의 분리는, 남성에게 욕망에 고유한 억압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남성은 성적인 불능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남성의 기질적인 불충성(infidelité)때문에, 남성은 사랑하는 여자를 저버리고, 욕망하는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여자가 짝을 찾을 때, 여자에게는 한 남자가 양분되어, 거세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그녀가 욕망하는 남근을 가진 남자로 나뉘어 진다. 그리하여 모든 여자들은 그녀들이 사랑하는 남자를 저버리고, (그녀가 욕망하는)바로 그 남자(사랑하는 남자와 동일한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라캉은 동성에 역시 기표로서의 남근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남성의 동성애는 욕망과 남근의 표시에 의해 결정되고, 여성의 동성애는 사랑의 요구의 영역 속에 있다.

결론적으로 남근 -기표의 중심 기능에 대해 요약하자면, 라캉은 프로이트의 직관, 즉 기표로서의 남근이 중심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성적인 단 하나의 리비도가 있을 뿐이라는 직관의 정당성을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맺음말

정신분석학의 웨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체제속의 가부장제가 성차별, 성적 불평등, 나아가 남성중심적 지배의 문화의 토대이며, 그러한 남성우월적 지배 담론을 지지할 뿐 아니라, 정신분석학이론 자체가 남성중심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웨미니스트들 가운데 가장 철저한 투사중 하나인 뒤스 이라가라이의 입장은 철학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배경을 아우르는 문화학적 차원에서, 기존의 정신분석이론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

면서, 투쟁방법도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방법보다는 남성중심적 담론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담론투쟁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리가라이의 퀘미니스트적 관점에 대항해서, 필자는 프로이트의 가장 철저한 후계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자크 라캉의 기호학적 관점을 대비시킴으로서, 사회적 성(gender)을 둘러싼 문화학적 쟁점에서 라캉의 기호학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라캉의 기호학적 관점이 앞으로 계속 다양한 문화연구의 연구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용문헌

- 에반스, 딜란(Dilan Evans), 『라캉 정신분석 사전』, 서울, 인간사랑, 1998.
- 이리가라이, 루스(Luce Irigaray), 『하나이지 않은 성』, 서울, 동문선, 2000.
- Beauvoir, Simone de, *The Second Sex*, London, Jonathan Cape, 1953.
- Elliott, Anthony, *Social Theory and Psychoanalysis in Transition*, Oxford, Blackwell, 1992.
- Irigaray, Luce,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rans. Gillian C. Gil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Lacan, Jacques, *Le seminaire, livve XX, Encore*, Paris, Editions du Seuil, 1975.
- Nicholson, Linda, J. (ed.), *Feminism / 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Critiques of Luce Irigaray to Lacanian
Psychoanalytic Theory**

Byung-hyuk Lee
(University of Seoul)

Luce Irigaray, a French feminist psychoanalyst, criticizes the Lacanian psychoanalytic theory for its patriarchal basis on the masculine power and authority. In the article, we examine Lacanian psychoanalytic sexual differences at the standpoint of Irigaray's psychoanalytic theory. In contrast, we defend Lacanian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semiotics.

접 수 일 : 2004년 4월 21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